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 백충현
소속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 독도 문제를 보는 법
일시 : 2005. 04.19

☞세미나내용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
1. 독도 영유권 다툼의 특성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신의 고유 영토라는 외교적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영유권은 한나라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경합하는 경우 주장하는 자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하여 국제법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편에 있다.
2.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입증 방법
증거력 있는 자료의 선택: 영유권의 귀속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1) 상대방 국가 영토가 아니며 2) 다른 제 3국의 영토도 아니며 3) 자국에게만 귀속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는데, 이 때 모든 증거 자료가 증거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된 증거가치의 비중도 다르게 평가된다.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외교적 마찰의 발단과 전개
1) 1945년 침략영토의 회복: 독도 영유권자에게 원상복귀
: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한반도 전역은 부속도서를 포함하여 침략 이전의 영역 범위로 원상 복귀 된다.
2) 독도 영유권 다툼의 발단
- 외교적 마찰은 1952년에 시작되었으나, 영유권 다툼의 원천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있었음.
4. 독도에 대한 영토 침략: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과 한반도 침략
1)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우선 감행한 독도 편입
2) 1905년 영토편입의 불법성과 영토 귀속의 증거
-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및 국민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무주지로 위장한 불법한 편입
3) 1905년 1월 38일 영토 편입 각의 결정의 법적 효력 평가
4) 1906년 이전 시기에 경영하였다는 일본의 증거들
- 일본의 고유영토로 영유권 행사한 적 없음
5.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증거와 영유권
→ 역사적으로 최초에는 무명의 도서였던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영유와 관리가 이

어졌다.

4. 정리 의견

1)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적이 없다. 1905년 1월 28일이 일본이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편입한 날이다.
2) 명치시기와 그 이전의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 하면서 어렵 활동에 이용한 실적은 국가 주권 행사와는 무관한 민간인의 활용이었다.
3) 일본의 국가 기록과 관찬의 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취급된 적이 없다.
4) 일본이 영토 편입을 결정한 1905년 당시 독도는 조선의 영역이었으며 무주지가 아니었다. 1906년 일본의 지방관리가 영토 편입을 알려 왔을 때에도 관할인 울릉 군수가 일본 영토 편입 주장을 사실 부근으로 단정하고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이 조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한 직접증거로서 결정적 가치가 있다.
5) 독도에 대한 일본 편입은 한반도 병합의 일환으로 탈취한 지역에 포함된다. 1910년 병합조약과는 시차가 있으나 적어도 한국고유의 영토를 불법 또는 무효인 법적 절차로서 침략하였고 식민지 지배 시기에는 한반도 전체의 일부로서 불법 점유하여 온 지역이었다.
6)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었으나 1905년 일본의 편입이라는 이름의 약탈로 식민지배하에 있다가 제 2차 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과정에서 원상회복한 한국 고유의 영토이다.